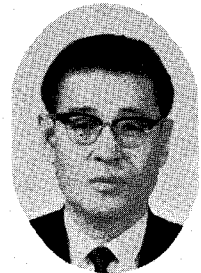


食糧과 食品

—食糧의 概念이 定立되어야 한다



金 旻 煥

F. A. O. 韓國協會 事務局長

1. 머릿말

白馬 非馬란 말이 있다. 흰말은 어디까지나 흰색을 가진 말(馬)을 지칭하는 말로서 순수한 말을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나는 '국제식량농업'이란 월간지를 어떤 水産業界会社重役에게 제시하였더니 水産과 食糧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하고 병대를 받았다. 水産物은 반찬에 속하는 것

이지, 어찌 그것이 '食糧'인가 하는 자신만만한 論調이었다.

식량은 안 먹으면 사람이 곧 죽는다는 절대적 食物(食物)이고 반찬이란 것은 안먹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水産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스스로 自虐的 해석을 하고 있는데도 아연失色할 도리밖에 없었다. 이와같은 식의 問答과 疎外는 식량중심의 유사한 各界 人士로부터 종종 당

하여 온 나로서는 語彙概念의 중요성을 남 달리 통감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白馬 非馬란 말은 엄격한 논리학적 概念說明에만 필요한 것이 아닌란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概論初부터 외국어를 인용하는 것은 좀 미안하지만 英語에서 말하는 'FOOD'와 같은 뜻을 가진 말이 우리말에는 單一用語로 통일된 것이 이제까지는 없다고 지

적하고 싶은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말은 語彙가 도리어 풍부하여 'FOOD'에 통하는 말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다. 飮食, 食物, 飮食物, 食料, 食料品 등과 양식, 먹을거리등이 있으나 이러한 語彙보다는 食糧과 食品이란 두 용어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여기에서 하나 밝히고 넘어 갈것은 우리는 日帝36年前에는 糧食을 우리말로 사용하였다가 日本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그말이 바꾸어져서 食糧으로 된 것이라 하겠으며 그 증거로서는 대부분의 辭典을 보면 食糧은 糧食을 찾아 보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말이란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특히 이경우에는 所得 彈性値의 변동) 환경에 따라 시대적으로 그 가진바 뜻이 부단히 변천하고 있는것도 사실이며 그 자체가 풍기는 색조와 「뉴앙스」가 다른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食糧과 食品概念의 定立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용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實踐問題가 해결된다면 그만이겠음으로 이 概念云云에 過度神經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을수 있다. 그러나 衣, 食, 住중에서 가장 중요한 「食」에 대한 語文 駒使가 현재와 같이 無定見하게 恣行的이며 과거의 因襲만에 끌려 하등의 反省없이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일종의 放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이란 水山の 露出部分과도 같고 脈의 露頭와도 같아서 그 말의 지니는 개념이 항상 그 전

체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食糧問題 전체를 해결하여 나가는데 있어서 이 문제의 露頭에 속하는 食糧과 食品의 개념부터 파고들어 正当把握을 하여 보자는 뜻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먼저 밝혀 두고자 한다.

2. 定立 안된 두 概念

나는 우선 이문제를 풀어보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사전을 모조리 찾아보기부터 시작하였다. 우선별표1에서 식량부터 보면 우리말 큰사전은 「먹고사는곡식」으로 나타나 있고, 국어대사전에는 먹고사는 곡식, 먹을 거리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중 우리가 모름지기 기대하는바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學園社의 大百科辭典인 것이다. 이 사전에서는 사람이 입으로 섭취하는 모든 식물(食物)로 되어 있으며 다시 상세한 풀이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사전은 거의 英語의 'FOOD'와 같은 뜻으로 식량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영사전 등을보면 식량이란 「food, provisions, foodstuff,」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식품을 사전에서 조사하여 보면 별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食料品의 준말이란것이 대부분이다. 한영사전에는 대부분이 「grocery」로 번역 되고 있으나 식료(食料)란 말이 오히려 Food 또는 Foodstuff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食品 그 자체는 사전에서보면 식량과는 달리 식료, 잡화류를 더 강조하는 뜻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辭典自体에 구구한 단어해석이 있어 어떠한 定立性이 결여되어 있을뿐 아니라 식량이 즉 일상먹는곡식 이라고 명백히 국한시킨 그러한 사전이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생각할 점이 있다 할 것이다.

만약 文世榮著 우리말 큰 辭典에 있는바와 같이 식량은 먹고사는 곡식 만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앞서引例한 수산관계 모중역의 말과같이 水産과 食糧은 아주 별개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중역에서 하신 말씀에 하나도 틀림이 없을것이며 농산물과 水産物은 분명히 식량이 아닌것이 되고 말 것이다.

한글학회에서 지은 가장 권위 있는 「큰 사전」에는 식량은 양식을 보라고 되어있고 양식을 보면 「먹고 사는 食物의 재료」로 되어 있으나 食糧이 穀類 또는 糧穀만을 뜻하는 것같은 착각은 우리 國民大多數에 머리 속에 깊이 그 개념이 박혀있는 성 싶다.

구체적인 실증을 들어 보면 政府에서 매년 발표하는 糧穀需給計劃이 바로 食糧需給計劃인양 신문에 大書特筆하는 것을 거의 매년 볼수 있으며 식량문제를 다루는 業界에서도 주로 양곡만이 그 전부인것같이 논설을 펴는 것을 허다히 볼 수 있다. 따라서 식품가계라 하면 바로 美都波 地下室에서 파는 加工食料品을 聯想하게 되고 米麥 등 穀類를 취급하는 中央都賣市場같은 것은 전혀 생

각하지 아니한다. 반대로 식량가
제라 하면 가공된 식료품을 생가
안하는것이 상례라 하겠다.

筆者는 이食糧概念을 해결하여
보고저하는 집념에서 문교부장관
에게 FAO 한국협회장 명의로 식
량의 뜻에 관한 해석을 정식 조
회한 일이 있다. 그답은 다음과
같았다.

「식량은 광의로 해석하면 곡물
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물의 재로
를 뜻하나, 사회통념상 곡물을 위
시한 주식물을 뜻하는것」 이란
것이다. 그러나 이 회답에 만족
을 느끼지 못하고 다시 文敎部
편수관실을 직접 방문하여 알아
본 일이 있다. 편수국에서 나오
는 교과서는 国民學校로부터 大
學에 이르기 까지 직접적인 영향
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家政科 系
統에서는 식품을 사용하고 있고
社會科系統에서는 食糧을 사용하
고 있는 것을 알았다. 가정과에
서는 Nutrition and Food는 영
양과 식품으로 쓰여지고 있고 社
會科에서는 「FAO」를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로, 「Food Prob
lem」을 식량문제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같은 문교부
내에서도 敎育을 위한 敎材全般
에 食糧과 食品이 혼용되고 있다
는 것이다.

자라나는 国民學校 兒童들은 과
연 어떤것이 食糧이고 어떤것이
食品인지 선생들의 說明도 생도
들의 이해도 의아스러울것이다.
일방 우리나라 軍部에 있어서는
非常食糧, 作戰食糧등 대부분이
食糧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 것으
로 안다.

이와같은 用語上的 亂脈相은 중
중 學界에서도 論議가 안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금도 시
대적 安着概念이 없이 혼용되고
있는 것만은 엄연한 사실인 것으
로 안다.

3. 食糧과 食品의 實相

별표2는 FAO가 발표한 19
70年版 食糧농업 백서(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에

나타난 극동지역중 우리나라를 포
함한 8개국의 食糧공급 상황이
다.

食糧의 範疇에 속하는 종류를
FAO의 분류방식에 의하면 1) 곡
류 2) 감자류 3) 설탕류 4) 두
류, 견과, 종실류 5) 과일류 6)
채소류 7) 고기류 8) 계란
류 9) 어개류 10) 우유류 11)
기름류등 도합 11개종류로 구분
되고 있어, 이 11종은 모두 食糧
인 것이다. 이 표를보면 극동지
역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로 穀類
를 많이 먹고 있는 것을 알 것이
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도 곡류
를 가장 많이 먹고 있는 나라인
것이다. 극동지역에서 가장 우리
나라가 최저로 먹고 있는것은 설탕
류, 두류 견과 종실류, 우유류
기름류등 5種이나 있다는 사실
에 크게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름류는 1인 1일당 1g
이고 우유류는 2g 라는 극히 적
은 량밖에 안되고 있다는 사실과
설탕류 12g 두류, 견과, 종실류
18g도 다른 나라에 비하여 현

저하게 적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生活이 얼마나 불균형하다는 것
을 여실히 설명하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반면에 곡류에 있어
서는 1인 1일당 582g로서 過
度偏重性을 나타내고 있으며 澱
粉質을 합하면 全熱量에 있어 94%
정도를 차지 하고 있으니 식량이
곧 곡식이라는 개념을 지니고 옛
날로부터 내려 왔다는 유래를 잘
알 수 있으며 현재도 막대한 外
穀을 도입하고 있으며, 귀중한 외
화를 소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
가 이 사실은 세인이 모두 公知
하는 일이지만 바로 이러한 현상
을 올바르게 잡기위하여도 식량
이란 잘못된 개념은 하루 빨리
시정되도록 인위적인 노력이 집
중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 할것이
다. 이와 같이 어느 나라에서도
잘 볼 수 없는 奇型的인 食생활
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인
데도 불구하고 곡식이 즉 食糧이
란 概念을 그대로 방치하여 들 수
는 없을 줄로 안다.

다시 표3을 보면 熱量에 있어
서는 그다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動物性蛋
白質이 總蛋白質中の 11.6%밖에
안되어 그 비율에 있어서 宗教的
영향을 받아 가장 적게 먹고 있는
印度보다 오히려 낮게 되어 있는
현상에 대하여 또한 주의깊게 보
아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보는 통계는 1968年분으로서 우
리나라도 해가 지나감에 따라 점
차 경향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趨勢의으로 볼 때 상
금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안다. 그
러나 隣國 日本의 境遇를 보면 곡

류는 91.5g가 감소되고 두류, 견과, 종실류에 있어서는 13.2g가 감소되는 반면 餘他の 9개 종류의 식량에 있어서는 전부 각각 현저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과 대비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기름류가 여찌하여 食糧인가. 설탕류는 생활정도가 높은 사람이 사치적으로 먹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니 이러한 환경에서 여찌 식량가공을 위한 제 2차산업이 힘차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각도를 바꾸어 구체적인 면을 살펴보기 위하여 1970年 11月 7日字를 전후한 都下 各新聞에서 발표된 外穀依存 18.4%란 大題目 밑에 71年度 食糧需給計劃이란 小題를 부친 糧穀需給計劃에 대한 記事를 보았을 것이다.

그 기사와 전내용을 여기에 소개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政府가 糧穀需給計劃을 발표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요식량인 곡식이 바로 國民全体가 먹어야 할 올바른 概念을 가진 食糧需給計劃인양 報導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반성하여 보아야 할 것으로 안다. 더욱 그 양곡수급계획은 1人當 農家 4.34合, 小農家 3.74合으로 제정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것을 食糧消費量單位로 報導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1人 1日當 양곡소비량을 그나마 物量的으로 表示한 計算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食糧全体의 消費量인양 食

糧消費量이라고 安撫롭게 쓸 이유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 것이겠는가. 이는 분명히 無意識中에 쓴 것이 아니면 糧穀이 즉 食糧이란 우리말 大辭典의 信奉에 緣由한 것이라 하겠고 곡식이 즉 食糧이란 뿌리깊은 觀念이 우리로 하여금 自身도 모르는 큰 過誤를 犯한 것이라 할 것이다.

1,592萬石의 막대한 導入 糧穀은 前年度보다 8.1%가 증가되었으며 이 量은 全体需要量의 18.4%가 된다는 것이다. 日本의 쌀을 우리가 逆說的으로 輸入하여 먹게 되는 것은 戰後 日本人의 覺醒에 의하여 食生活改善을 철저히 하고 食糧加工業이 현저한 發展을 보아 곡식만 아닌 여러가지 食糧 또는 食品을 國民이 많이 바꾸어 먹게 됨으로 인하여 餘蓄이 생긴 것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바꾸어 말하면 全世界에 그 유례가 없을 정도의 糧穀消費 偏重型의 食生活을 旧態依然하게 하고 있는데 바로 기인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판국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言論人이 함부로 食糧을 마치 국민이 더 먹어야 된다는 勸獎意圖가 있는 것 같은 誤解를 자아낼 수도 있는 食糧需給計劃云云 까지 大題를 부쳐 報導할 것까지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꼭 이러한 용어를 써야 한다면 主要食糧需給計劃이라고 표시하여 畜産食糧과 水産食糧 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표시가 아쉽다. 우리 人間의 食生活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動物性蛋白質을 공급하여주는 食糧資源

을 고질적인 因襲의 영향을 받아 英語로는 훌륭하게 말이 되는 畜産食糧, 水産食糧이란 語彙가 韓國社會에 있어서는 語不成이 되어 社會通念上 잘 안먹어지고 있어 겨우 이 뜻을 표시하려면 畜産食品 또는 水産食品이라고 하여야만 말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社會의 實相이 아닌가 생각한다.

4. 食品工業의 發展을 위한 食糧

결론적으로 말하여 食糧이란 개념이 조속히 定立되지 아니 한다면 그만큼 食品工業의 발달을 저해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 것이다.

食糧과 食品의 용어 개념을 云云하는 것은 末梢神經의인 理論에 불과하다고 일축할 사람도 있겠으나 단적으로 말하여 곡류를 많이 먹는 만큼 가공식품을 그만큼 덜 먹는 현상이 되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한 예를 別표2의 기름류에서 본다면 1인1일당 공급량이 불과 1g밖에 안되고 있다는 것이(全世界적으로 제일적음) 消費大衆인 國民과 爲政當局에서 食糧이란 「카테고리」에서 認識되고 이 기름류의 缺乏으로 인한 國民 保健上에 미칠 악영향력이 충분히 고려되었더라면 우리나라 食用油脂工業은 現在 이상으로 발달되었을 것이다.

“食糧”을 다루되 우리가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主要食糧과 加工過程을 겪는 飲食料品과

油脂류 등으로 一括하여 생각하고 처리한다면 모든 문제는 보다 균형있게 순조롭게 풀려 나갈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일을 한 곳에서 다루는 政府機構가 또한 아쉬운 것이다. 우리는 가까운 隣國의 食生活 變遷過程을 龜鑑삼아서 보다 올바른 食糧政策이 施行되어야 하고 國民의 覺醒이 있어야 하겠다.

현재 우리정부에서도 각종 施策을 점차 구현시키고 있는 줄이나 國家營養審議會의 設置와 綜合食糧 担当局 또는 庁을 빨리 실현하고 韓國人 營養基準量 設定(現在는 FAO韓國協會가 策定한 韓國人 營養勸奨量이 있을 따름) 國民 食糧消費 및 營養調查가 본

격적으로 이루어지고 食糧需給表가 보다 권위있게 작성되어 이러한 科學的 土台위에서 食糧計劃과 增産計劃이 이루어져야만 이에 따라 식품공업의 발전도 보다 정상화되어 그 進度를 촉진할 것으로 믿으며 우리가 모두 소망하는 生活水準의 향상이 빨라질 것으로 아는 바이다.

끝으로 이것은 個人的인 意見이지만 앞으로 食糧이란 用語는 모름직이 “FOOD”와 같은 뜻에서 廣義的으로 節度있게 쓰여지고 食品이란 用語는 加工을 前提한 또는 加工된 食糧의 範疇에 국한시켜 食糧보다는 狹義的으로 사용하였으면 하는 것을 감히 提議하고저 한다. 따라서 食糧이 즉 곡식이다 라는 概念은 이미 사라

진 것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만약 食品이 食糧과 完全 同格의 概念을 가지고 무차별하게 오늘날과 같이 혼용되어 國民의 教育에까지 쓰여진다면 그것은 彼此에 그 概念이 劣化될 것이 우려될 뿐 아니라 부수적인 폐단이 많아질 것이다.

이 용어개념문제는 앞으로 學界와 業界는 물론 文教部를 위시한 有關 各部 兪間에 충분히 검토되어 概念形成의 定着에 힘써야 할 것이며 食生活을 중시한 보다 綜合的인 國民運動을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전체적인 食糧문제 해결과 食品工業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도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표 1. 사전에 나타난 食糧과 食品의 설명

사 전 명	저 자	발 행 처	식 량 (食 糧)	식 품 (食 品)
국어대사전	이 회 승	민 중 서 관	양식(糧食) 먹고 사는 곡식. 먹을 거리. 식량	식료품(食料品)
우리말큰辭典	文 世 榮	三星文化社	양식(糧食) 먹고 사는 곡식	식료품의 준말
동 아 새 국 어 사 전	김 상 문	동아출판사	식량(食糧) 먹을 양식(Provision)	식료품의 준말
큰 사 전	한글학회	을유문화사	양식(糧食) 먹고 사는 식물(食物)의 재료	식료품의 준말
종합국어사전	김 민 수 홍 응 선	語 文 閣	먹을 양식	식료품
大百科辭典	金 益 達	學 園 社	사람이 입으로 섭취하는 모든 식물(食物). 일반적으로 식량이라 하면 주식(主食)인 쌀, 보리, 밀, 콩, 팥, 조, 수수같은 것을 말한다. [구분] 식량의 구분은 주식과 부식(副食)으로 구분 할 것이 아니라 가치에 의하여 분별하여야 한다. 즉 영양가치, 기호적(嗜好的)가치 또는 가격(價格)으로서의 가치로 나누어야 할 것이다. <맛있고 배부르고 값이 싼것>이란 말은 모든 가치를 잘 표현한 말이다.	식품이라는 것은 한가지 이상의 영양소(營養素)를 포함하고 유해물을 포함하지 않는 천연산물 또는 가공품을 말한다. 따라서 쌀, 보리, 생선, 야채 혹은 가공품인 된장, 간장도 모두 식료품인 것이다. 우리가 일상 섭취하는 보통종류는 400종이상에 달하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합하면 1,000종 정도이다.

한미대사전	S E 만틴 李 敷 河 秀	민중서관	provisions, foodstuff, food	식료품, groceries
신 콘사이스 영한사전	동아출판사 사 서 부	동아출판사	food; 먹을것, 양식, 먹이, 영양물, 자료	groceries, 식료, 잡화류 식료잡화 판매업
포켓트 한영사전	崔 基 元	민중서관	food, foodstuff, provision	식품, 식료와 같은
신영한대사전	고광만의 3인	어문각	food, 먹을것, 식물(동물이 섭취하는), 자양분, 영양물	groceries 식료품판매업 거 기에서 판매하는 상품류 (사탕, 커피, 향미료 따위)

표 2. 극동 지역 각국 식량 공급 상황 비교표

국명	연도	1	2	3	4	5	6	7	8	9	10	11
		곡류	감자류및 전분류	설탕류	두류, 견과 종실류	채소류	과실류	고기류	계란류	어깨류	우유류	기름류
실론	1968	363	84	59	75	103	26	5	5	20	47	10
자유중국	1968	445	80	34	36	185	144	74	10	41	17	18
인도	1966-68	370	44	43	44	-	-	-	-	3	-	9
일본	1958	461.5	62.0	12.0	69.2	252.4	23.0	15.5	17.6	71.7	24.0	5.8
	1968	370.0	181.0	61.0	46.0	370.0	141.0	37.0	36.0	89.0	123.0	24.0
한국	1967	582	117	※12	※18	151	30	15	8	34	※2	※1
파키스탄	1967-68	435	41	49	19	59	87	11	1	5	208	16
필리핀	1968	345	92	50	22	75	127	43	7	54	48	8

비 고

(단위: 1인 1일당 g)

1. 자료: FAO 1970년판 식량농업백서에서
2. ※표는 한국이 극동지역중에서 최저인것을 표시
3. 일본의 10년간 변천을 비교

표 3. 극동지역 각국 칼로리 및 단백질 공급비교표

국명	연도	열량(Cal)	총단백질(g)	식 동 상 내 역		동 물 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g	%	g	%
실론	1968	2,150	46.2	37.7	81.6	8.5	18.4
자유중국	1968	2,510	64.8	44.3	68.4	20.5	31.6
인도	1966-68	1,900	47.8	41.7	87.2	6.1	12.8
일본	1968	2,460	75.7	46.2	61.0	29.5	39.0
한국	1968	2,430	69.5	61.4	88.4	8.1	11.6
파키스탄	1968	2,230	50.6	40.5	80.0	10.1	20.0
필리핀	1968	2,010	51.6	31.7	61.4	19.9	38.6

자료: FAO 1970년도 식량농업백서에서